

“따뜻한 한끼로 마음 나눌 수 있어 기뻐요”

목포도바기봉사회, 13년째 ‘밥상’ 나눔

女회원 30여명 매일 셋째주 木 배식
팔금식육식당 식재료 후원 등 힘 보태
치매안심센터 연계 건강관리 지원도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목포 지역의 한 여성 봉사단체가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31일 목포도바기봉사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연동 소재 산정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재료 손질부터 조리, 상차림까지 직접 도맡아 국과 전, 잡채, 돼



목포도바기봉사회는 최근 목포시 연동에 위치한 산정경로당을 찾아 '사랑의 점심 나눔 행사'를 가진 후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목포도바기봉사회 제공>

지주물럭 등 정성 가득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한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을 위해 축하 공연을 열며 홀로 보낼 뻔한 생일을 뜻깊게 만들기도 했다.

'또바기'는 '언제나 한결같이 늘 그렇게'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점심 한 끼를 챙기기 위해 힘겹게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해 몇몇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13년 1월 또바기봉사회를 결성했다.

이후 매일 셋째주 목요일마다 목포 원도심 경로당을 순회하며 정기적인 배식 봉사를 이어오

고 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들이 매일 점심일만 회비를 모아 활동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인 팔금식육식당에서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경로당 점심 대접뿐만 아니라 하나노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배식 봉사, 목포시 참좋은사랑의밭차 참여, 효사랑 밀반찬 배달 등 다방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미순 회장은 “봉사 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 달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 때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기꺼이 손을 보태주는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곳곳에 따뜻한 식사와 마음을 나누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답솔라그룹, 북구가족센터 물품 후원

광주북구가족센터는 31일 “답솔라그룹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은 생필품 등으로 구성됐다. 노효경 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답솔라그룹에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을 필

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북구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윤찬용기자



서구, 민선8기 전국 첫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 3관왕

광주 서구는 31일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종합대상을 3차례 수상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한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또 ▲2023년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복지보건

대상·인재육성대상 등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수상하며 행정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28만 서구민과 1천여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성기자

광양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운전자 등 안전교육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광양 성황스포츠클럽 2층 세미나실에서 학교 통학차량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전략교통안전연구소 박성업 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현장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학버스 운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 교육 등이 다뤄졌다.

또한 어린이의 행동 특성 이해와 돌발 상황 대응법을 심도 있게 공유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운전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김여선 교육장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차량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과 교통법규 준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엄격히 지켜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광주대, ‘2026 GU 신입생 스타트 캠프’ 호응

광주대학교는 “최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조기 적응과 소속감 형성을 위해 마련한 ‘2026학년도 GU 신입생 스타트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나누어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두 차례 진행했으며, 재학생과 교직원 등 1천500여 명이 함께한 대규모 대학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학부(과)별로 이뤄지던 기존 MT 형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동기·선배·교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지혁 학생지원처장은 “앞으로도 신입생들이 안정적인 대학생활에 정착하고, 광주대의 교육이념인 ‘백에·창의·전문인’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농협 완도군지부, 제휴카드 사용 적립 기금 기부

완도군은 “최근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로부터 2025년도 제휴카드 사용 적립 기금 6천673만원을 전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매년 완도군청 법인카드와 보조금카드, 복지카드 등 이용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 조성했다.

올해는 지난해 전달된 기금(6천295만원) 대비 378만원이 증가했으며, 카드 사용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대권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장은 “지역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협력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 실의 증진에 노력하는 농협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소중한 기금은 올해 군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사업에 투명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농어촌공 담양지사 ‘청년농업인 소통 간담회’ 성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최근 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청년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품질관리원, 공사 관계자와 지역 대표 청년농업인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한 안전 영농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담양지사는 지난해 37개 청년 농가에 12ha의 농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선입대후매도 및 공공임대농 농지매입 등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이수진 지사장은 “담양은 타지보다 농지 가격이 높아 자금력이 약한 청년농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며 “공공임대 지원을 총출력 강화해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전남대 김민지·이정혁 학생 ‘전국건축작품자랑’ 잇단 수상



김민지 이정혁

전남대 공학대학 건축디자인학과가 ‘2026 전국건축작품자랑’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31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김민지(2학년) 학생이 창의적 모델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정혁(5학년) 학생은 우수상을 차지했다.

김민지 학생의 수상작 ‘From Drawing to Structure’는 2D 드로잉의 조형적 질서가 3D 공간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정교하게 담아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깊이 있는 통찰력과 과감한 조형미를 갖췄다’는 극찬을 받았다.

이정혁 학생은 절제된 재료와 빛의 활용을 통해 모형의 공간적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공간별 밀도 대비와 입면의 다변화가 건축적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임승완 학과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이 설계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고, 자신만의 건축적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고 실무 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광주 북부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지난 27일 북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 5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OX퀴즈와 홍보물품 전달 등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교통법규를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안전한 보행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교육과 홍보,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포체류지원센터’ 설명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31일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관계자들과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전남 지역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광주고려인마을, 이주민종합지원센터,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 등에서 함께했다.

각 기관에선 동포들의 고충을 털어냈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 동포체류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결론

▲박철영·엄경화씨 장남 성훈군, 류재수·최미영씨 차녀 달애(광주도시공사)양=4월4일(토) 오전 11시30분 하우스오브드레메팅홀(드래르 신관) 3층 아벨린홀(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도549).